

지역 생체의료산업 동남아 진출 '박차'

광주지역 생체의료소재부품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향후 지역 의료산업 수출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호남 유일의 의료산업에 참석한 지역 생체의료소재부품 기업들이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기업들과 총 3,000만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155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중 광주 뷰티산업을 대표하는 ㈜메종 등 60여개 기업이 광주시와 광주TP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의료 제품들로 '광주관'을 별도로 마련해 생체의료소재부품을 이끄는 혁신기술과 관련 제품 등을 선보이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메종은 천연유래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 '닥터 메종'으로 베트남 'LH sp'와 총액 300만달러 수출MOU와 태국 'ANAKYN'사와 100만달러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케이제이메디텍도 치과임플란트 등 총액 300만달러를 베트남 'Ha Thanh Technology'사와 5년간 수출MOU를 체결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닥터터스가 베트남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호남 유일의 의료산업에 참석한 지역 생체의료소재부품 기업들이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기업들과 총 3,000만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메종 등 12개기업 베트남에 3천만달러 수출 계약 생체소재부품산업 글로벌 생산기지 발돋움 기대

'Kteck Technology Consulting'사와 300만달러 수출MOU를 체결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뷰티화장품 업체와 생체소재부품 업체 12곳이 베트남 바이어와 총 3,000만달러의 수출협약을 성사시킴에 따라 향후 베트남 해외시장 진출에 큰 디딤돌로 작용할 예정이다.

2018 시니어&의료산업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수출 MOU 체결은 그동안 베트남을 비롯

한 동남아시아 진출을 목표로 진행되어온 광주TP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TP에서는 2017년 이후 전남 대치전원, 포인트비즈랩 등 지역내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홍보활동을 전개해 온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베트남 현지에서 개최된 하노이의료기기박람회에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홍보팀을 파견, 현지 바이어를 직접 발굴해 이번 MOU를 성사시키는 결

실을 맺게 됐다. 광주TP는 이번 수출 MOU를 시작으로 지역 생체소재부품기업들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 본격 진출함으로써 광주가 생체소재부품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TP 생체의료소재부품센터이경구 센터장은 "지역 의료산업 강점인 강력한 산학병연 네트워크가 국가적으로 큰 지원 없이 이런 성장을 이룩해 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료산업이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으며, 아울러 기업들의 노력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중소기업계, '주휴수당 폐지' 추진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주휴일 무급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방안,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등 노동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으로 인해 기업들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해져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주휴수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의 법 준수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중소 생산현장의 구조적 장시간 근로 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신정기 위원장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노동현안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큰 상황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소모적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며 "남은 정국회기간 동안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노동관련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주)디자인바이, 국내외 공모전 '3관왕'

일본 GD분상 수상 등 글로벌 경쟁력 입증

광주지역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인 (주)디자인바이가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2018'에서 분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재)광주디자인센터는 광주지역 디자인전문회사 (주)디자인바이는 자체 개발한 유아용 다용도 의자 '티티모'가 '굿디자인 어워드 2018'에서 제품디자인 부문 분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62년째인 굿디자인 어워드는 일본산업디자인진흥회(JIDPO)가 주관하는 일본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전에 제품·공간·미디어·시스템 등 16개 분야에 세계 1,200명의 디자이너가 출품했으며, 디자인 뿐만 아니라 혁신성(Innovation), 미학(Esthetics), 인간성(Humanity), 정직함(Honesty), 윤리성(Ethics)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에는 '지-마크(G-Mark)'를 부여한다.

유아용 다용도 의자 '티티모'는 단순하면서도 안정된 형태의 어린이용 EPP(Expanded Polypropylene) 의자. 의자를 뒤집어 놓으면 책상 등으로 활용 가능한 디자인과 혁신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아이가 3-8세 사이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제품들이 '무용지물'되어 버려지는 점에 착안, 제품을 뒤집어 놓으면 빠른 신체 성장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주)디자인바이는 지난 3월 블럭타입의 팻하우스 모듈 제품 '비비퍼피'가 독일 Red-dot(레드닷) 분상에 이어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대한민국 굿디자인상 수상 등 '3관왕'에 오르며, 세계적인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티티모' 제품은 오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전시되며,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티티모 전용 사이트(<http://ttmo.kr>)를 통해 판매에 들어가는 등 시장성도 인정받고 있다. /김용현 기자

중기 협동조합 남북경협 참여 의사 높아

중기중앙회 인식조사 결과 개성·평양·신의주 등 '서해 경제벨트' 진출 선호

중소기업 협동조합 10곳 6곳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14개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10곳 중 6곳(56%)가 남북경협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진출희망지역으로는 개성, 평양, 신의주 등 북한의 '서해 경제벨트'를 선호했고, 개성(48.1%)과 평양(27.6%)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연합회보다는 전국조합과 지방조합에서, 조합 규모(조합원수, 평균 매출액)가 클수록 협동조합의 남북경협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선호하는 남북경협

협력 방식으로는 ▲개성공단과 유사한 북한 내 근로자 활용(39.3%) ▲북한 인력을 활용한 위탁가공무역 협력(28%) ▲제3국에서 북한 인력활용(6.1%) 등 북한 인력을 활용한 경제협력 방식의 선호도(73.4%)가 높게 나타나 기업들에게 북한의 인력자원은 매력적인 요소임이 다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이 필요한 분야 및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모두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순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10개사 중 7개사(67.8%)가 남북경협 참가 시 예상되는 리스크로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같은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꼽았다.

리스크 해소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회복'이 가장 중

요하다는 응답이 1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위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7.9%로 높게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계의 남북경협 참가 의지는 높은 편이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신뢰 회복 등 제3차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현안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정보를 공유코자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를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도내 중기 역량 극대화 TP, 연구개발사업 설명회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R&D 역량 극대화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11일 전남테크노파크 본원 지식산업센터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여수 석유화학 산단 내 방치되고 있는 저온폐열과 온실가스를 자원화 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할수 있는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지원사업'과 전남도 지원으로 매년 추진되는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이 소개된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과 전략적 연계로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술혁신 역량 향상을 위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및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의 설명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공기청정기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직자만 김라게 스테레오로 공기를 케어하다
mini air DK

www.e-dk.co.kr

제습기 이젠 사계절 필수품입니다.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상담)
1544-1154